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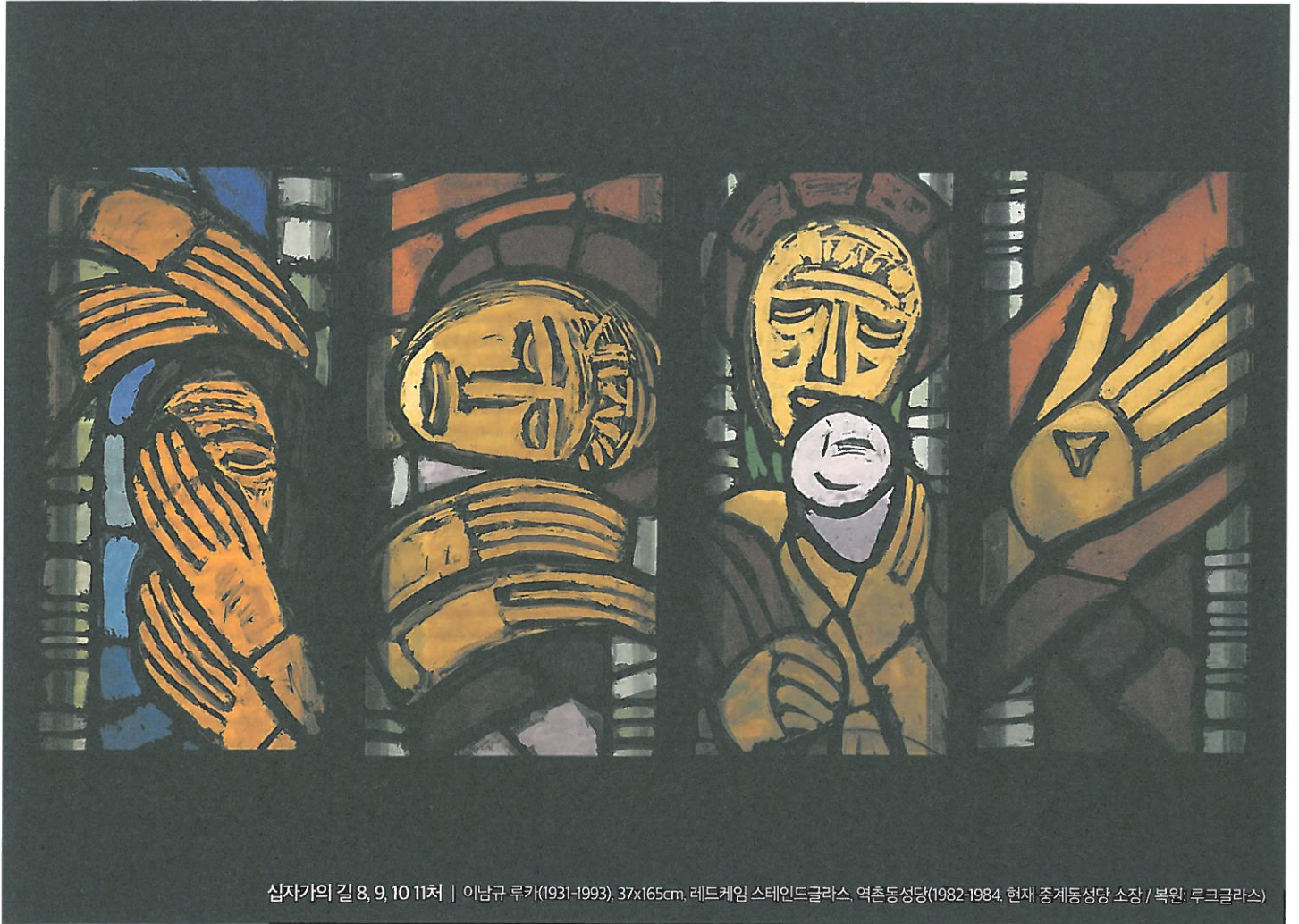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39호 2023년 3월 19일(가해)

사순 제4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십자가의 길 8, 9, 10 11차 | 이남규 루키(1931-1993), 37x165cm, 레드케임 스테인드글라스, 역촌동성당(1982-1984, 현재 중계동성당 소장 / 복원: 루크글라스)

입당송 |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 1사무 16,1ㄱㄴㄷ,6-7.10-13ㄴ

화답송 | 시편 23(22),1-3ㄱ.3ㄴㄷ-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5,8-14

복음환호송 | 요한 8,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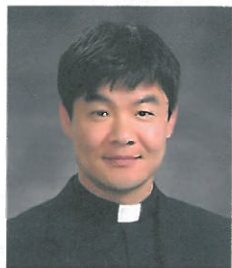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 요한 9,1-41<또는 9,1.6-9.13-17.34-38>

영성체송 | 요한 9,11.38 참조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허석훈 루카 신부 | 한강성당 주임

| '완고함' 3종 세트

우리말 표현 중에 재미난 것 하나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권력에 눈이 멀어' '성공에 눈이 멀어' 등, 집착하는 것만 보고 있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위의 우리말 표현처럼 역설적일 때,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에 묵직한 떨림을 남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오늘 복음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어 그를 보게 하시면서, 세상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보는 사람처럼 떠돌아 대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눈멀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눈멀음이 드러나는 구절은,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몇이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16절)라고 우기며, 안식일에 치유하심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능력'에 눈감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경험하는 완고함입니다. 미운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드러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눈멀음은, 치유 받은 사람을 다그치며 현실을 부정하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

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7절)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28절)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29절) 자신들의 믿음과 사유 체계를 넘어서는 하느님을 인정할 수 없는 완고함입니다. 지극한 교만이고 아집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얼마 동안 믿었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뭘 안다고 조언해!'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신앙인(사제, 수도자를 포함하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한 사람의 처지'와 관련해 '마음과 신앙'도 예단하는 모습으로 변저갑니다.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34절)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이 없으니 절대로 나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은 인간의 어리석은 편견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늘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게서 드러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중에 '미움으로 가득한 분노', '내 이성의 합리성을 충족하려는 오만함', '이웃에 대한 편견', 이러한 일상의 '완고함 3종 세트'가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야 하는 보잘것없는 신앙인임을 깨닫는 사순 시기이길 축원해 드립니다.



사순2주부터 5주까지는 이남규 작가가 십자가의 길 작품을 만들면서 묵상한 성경 구절을 나눕니다

제8처 예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때문에 울어라." (루카 23,28)

제9처 예수, 세번째 넘어지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태 26,34)

제10처 예수, 옷을 벗기우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4)

제11처 예수,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골라 2,19-20)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그리운 시어머니

1년 전 햇살이 좋은 주말 아침, 시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2년 반의 병환 끝에 아들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히 영면하셨습니다. 임종 소식을 듣고 저와 제 어린 딸도 바로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온화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것만 같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꼭 잡고 울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실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장례는 치러봤어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주검을 마주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직 어린 딸은 온기가 느껴지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가족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지도 일 년이 지났습니다.

평소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도 드리지 못하며 느리에게 어머니는 행여 피해가 될까 배려하시느라 모든 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늘나라로 떠나신 이후 오히려 제 곁에 자주 오셔서 종종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많은 물건들을 대할 때마다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던 모습이 떠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어머니와 마음으로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도 저를 찾아와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일부러 종교를 갖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신앙이 다르면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배우자에게 맞추려고 미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결혼 생활에 맞출 수가 있을까? 결혼



유난이 글라라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

과 동시에 직장도 포기하고, 친정과 멀어지고, 심지어 종교까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못했던 어머니 세대의 삶이 저에게는 매우 갑갑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저에게 이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아버지께서는 종교가 없으셔서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당신이 원하던 불교 신자가 되셨습니다. 배우자의 종교에 대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제 신앙생활도 존중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히려 제 자신이 종교라는 틀 안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갑갑하게만 느껴졌던 어머니의 의지가 빛나 보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열린 자세가 아름답다는 생각도요.

지금도 어머니의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사순절을 맞이하여 다시 듣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저에게 위로이며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낸 많은 분들에게도 이번 사순절이 위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껏으로 보는
교회 가르침 '전례'

교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형성하는 말씀

세상에 충실하게 전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자유의 기둥이 되어 기도” (히 3:6)이다.

- 교황청 성서위원회 <성경의 영감과 진리> 149항 -



“나는 하느님을 믿나이다” 하느님의 이름 2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야훼(YHWH)’라는 하느님의 이름에 ‘~을 위해 함께 계신 하느님’의 의미가 들어 있다는 말은 이 이름에 대한 하느님 자신의 설명을 전하는 구약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탈출기 34장 4-9절을 보면 하느님은 모세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하신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바로 하느님 이름에 대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추상적이고, 인간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고 자애로운 분이요,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그럽고 자애로운 분으로 체험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신 하느님입니다.

이런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결정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를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 1,23) 예수님은 “인간 역사 안에 함께 계시는 ‘있는 나’라는 하느님의 이름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이 말은 하느님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기쁨과 고뇌, 슬픔을 맛보신 그런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대사제가 되셨습니다. (히브 2,17 참조)

한편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주님의 기도에도 등

장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는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은 하느님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서 오남용될 수도, 그래서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거룩해지다’라는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도록, 곧 ‘우리과 함께 계신 그분’을 드러내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수록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빛납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언급된 또 다른 기도는 우리가 장엄 축복을 받을 때 듣게 되는데 시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시편 124,8) 우리는 살면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그럴 때 도움을 구합니다. 그 도움은 사람일 수도, 물질적 또는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도는 여기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궁극적 도움은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함께 계신 하느님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모님의 노래 첫마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루카 1,46)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찬송하다’로 번역한 이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이 ‘항상 더 크신 분’임을 내 영혼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요 희망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도 2:1~13)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도들의 복음 선포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교회가 지금의 세계적인 모습으로 성장한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인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가 탄생한 날로 기념합니다. 이때 성당에서는 성령의 일곱 은사가 쓰여 있는 성령칠은 카드를 뽑기도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사도 1:5)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성령 강림은 신약의 사건이지만 구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파스카 다음 5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입니다.(레위 23:15-21)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날을 시나이 사건과 연관 지으면서 율법을 받은 일을 경축하고 그 계약을 갱신하는 축제일로 지냈습니다. 이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새로운 파스카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날은 예레미야의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예레 31:31)는 예언과 에제키엘의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예제 36:26)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신자들은 구약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언약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었다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구원의 새 언약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 강림을 통해 드러난 표징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태어난 지방말’(사도 2:8)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이 서로 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에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세상 모든 이들이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선포를 통해 진정

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어떤 이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명을 받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처럼 한쪽은 비웃지만, 한쪽은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비웃는다고 해도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인 증거자와 성령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대인들은
그날을 시나이 사건과
연관 지으면서
율법을 받은 일을 경축하고
그 계약을 갱신하는 축제일로
지냈습니다.

이날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새로운 파스카임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

건축 현장에서



황원옥 마리아에스텔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수녀·가톨릭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 초년생 시절,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며 성당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관리·감독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부 아저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그저 원칙대로 하자는 단순한 생각으로 겁 없이 일을 시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000년대의 문턱을 넘기 전 건설 현장엔 얼마나 차갑고 무뎠었는지, 아저씨들의 귀에는 제 목소리만 들리지 않는 듯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내 나라 언어로 겪는 물이해와 편견에 비하면 힘겨웠던 외국 유학도 젊어서 겪을 수 있었던 행복한 고민이었음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에 여자가, 더구나 수녀가 감독을 맡아 현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생소하고 이질감이 커 섣뚱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요.

그렇게라도 현장을 다니는 것이 맞는지, 혹시 헛수고하는 건 아닌지 하는 별의별 생각으로 기운 빠져 귀가하기를 며칠, 어느 날 점심시간에 목공 아저씨들이 흠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이 식을까 봐 허겁지겁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반찬과 식은 국을 보면서 웬지 모를 측은지심에 저분들도 각자의 집에 가면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요, 노모에게는 사랑

받는 아들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순간 서운했던 감정들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반면에 매 끼니 따뜻하고 정갈하게 올라오는 제 밥상이 몹시도 송구스럽고 새삼 감사로웠습니다.

몇 날을 현장을 걸돌며 고민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용기 내어 인부 아저씨들 밥상에 제 손가락을 한번 얹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바닥에 함께 앉아보았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함께 음식을 먹으니 역시나 현장에는 알량한 지식보다 소박한 정이 더 필요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같은 눈높이에서 땀과 먼지로 까매진 이마의 주름들이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훈장인 듯 귀한 보석 같았습니다.

밥 한 끼가 그 팀에 들어가는 통과의례가 되었을까요, 그날부터 조금씩 아저씨들과 한 팀이 되어 가기 시작했고, 그

로부터 20여 년이 훌쩍 흐른 지금까지도 그분들과 신뢰하며 가끔 협업도 하는 관계로 남아있음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밥 한 끼에 차고도 넘치는 인생 공부를 했습니다. 책에서 배우고 익혔던 지식들은 파편이 되었습니다. 원리 원칙들로 무장되었던 저의 완고함과 부족함은 한동안 뼈저린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지금도 가능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에 앞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먼저 겸손하게 주위를 살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상황에서 잘 지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일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매사에 인내로이 살피봐 주시는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2023년 /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3월18일부터 인터넷 접수 : culture.catholic.or.kr

인문학 :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때, 곳 : 4월13일~6월8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9회), 영성센터 B203호 | 수강료 : 3만원(1과목), 8만원(3과목)

01 교회사 (송관희 연구이사)

1강(4/13) : 교회사에 등장하는 복식
2강(4/20) : 교황의 옷과 티아라
3강(4/27) : 순교자의 그림에 나타난 복식

02 건축 (김광현 교수)

1강(5/4) : 고딕 대성당의 빛
2강(5/11) : 성당의 공간적 본질
3강(5/18) : 성당의 평면과 용어

03 성경 (김상우 신부)

1강(5/25) : 테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2강(6/1) : 필레몬 가정 교회 공동체
3강(6/8) : 필리피 교회 공동체

영성

01 '청년' 헬로우 기도

내용 :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월모임
때 : 매월 첫 번째(화) 19시30분~21시
곳 :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수강료 : 무료

02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내용 : 함께 성장하는 신앙과 글쓰기
때 : 4월20일~5월25일 매주(목) 19시30분
~21시 (6회) | 수강료 : 8만원
곳 : 영성센터 A304호

교회 미술사

01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강사 : 박혜원 소피아
때 : 4월18일~5월9일 매주(화) 19시30분
~21시 | 수강료 : 5만원
곳 : 영성센터 B201호 (4회)

문화

01 성령초 조각

내용 : 초에 새의 이미지를 새기고 조각하기
때 : 5월16일, 23일 (화)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A302호 (2회)
수강료 : 5만원(재료비 포함)

02 아크릴 물감으로 성화 그리기

내용 : 아크릴 물감 사용법 익히고 성화 그리기
때 : 4월18일~5월9일 매주(화)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A302호 (4회)
수강료 : 8만원(재료비 포함)

03 캘리그래피로 성경 쓰기

내용 :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성경 쓰기
때 : 4월18일~5월9일 매주(화)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A313호 (4회)
수강료 : 5만원(재료비 별도)

04 디지털로 시작하는 성당 드로잉

내용 : '스케치북' 앱을 이용한 테블릿 드로잉
때 : 4월18일~5월9일 매주(화)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A304호 (4회)
수강료 : 6만원(테블릿 지참)

05 성물 보관함 만들기

내용 : 목공예로 성물 보관함 만들기
때 : 4월18일~5월9일 매주(화)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A303호 (4회)
수강료 : 5만원(재료비 별도)

06 주님과 함께 성경 말씀 쓰기

내용 : 판본체로 성경 말씀 쓰기
때 : 4월20일~5월11일 매주(목) 19시30분~
21시 | 수강료 : 5만원(재료비 별도)
곳 : 영성센터 A302호 (4회)

07 세례명 수제 도장 만들기

내용 : 수제 도장 만들기(이름/세례명/가톨릭문양)
때 : 4월20일~5월11일 매주(목)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A303호 (4회)
수강료 : 5만원(재료비 별도)

08 칼림바 성가 연주

내용 : 칼림바의 맑고 은은한 소리로 성가 연주
때 : 4월13일~5월18일 매주(목)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B304호 (6회)
수강료 : 8만원(악기 지참 또는 공동 구매)

09 우쿨렐레 성가 연주

내용 : 우쿨렐레로 성가와 생활성가 연주하기
때 : 4월13일~5월18일 매주(목) 19시~21시
곳 : 영성센터 B303호 (6회)
수강료 : 8만원(악기 지참 또는 공동 구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브렌단 호반 신부님 선종

서울대교구에서 활동하셨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브렌단 호반 신부님께서 지난 2월 24일 아일랜드에서 76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브렌단 호반 신부님은 1946년에 메요 캐슬 바에서 출생하여 1971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영월성당(원주교구), 장위동성당, 문막성당(원주교구)에서 사목하시고, 원주교구청을 거쳐 상봉동성당, 사당동성당, 삼정동(구 오정동)성당(인천교구), 만덕동성당(부산교구), 광주대교구 노동사목 '노동자 성요셉 집'과 알코올중독 사목 '알코올 교육 상담소'에서 사목하셨습니다. 3월 10일(금)에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장례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4년 3월 21일 김창수 마르티노 신부(48세)
- 2011년 3월 23일 박인선 도미니꼬 신부(59세)
- 2017년 3월 21일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88세)
- 2021년 3월 24일 김병도 프란치스코 몬시뇰(87세)
- 2022년 3월 23일 차원석 토마스 신부(73세)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

선교는 교회의 보편적 사명입니다. 이에 서울대교구는 우석제(과테말라) 신부, 이준호(미국 알래스카) 신부, 정해성(일본) 신부, 이승규(프랑스) 신부를 해외 선교 사제로 임명하며,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를 정순택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봉헌하오니 참석하시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집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때, 곳: 3월 24일(금) 오후 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문의: 02)727-2424 해외선교봉사국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일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내용 수정 ·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2박3일 대침묵 피정

주제: 나는 내 인생을 너는 내 인생을

때, 곳: 4월14일~16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서울대교구 온라인 예비 신자 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온라인 예비 신자교리' 내용 참조 / 신청: 본당 사무실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시숙 개인전: 1전시실

재단법인 기쁨나눔 전시회: 2전시실

관술 십자가와 바느질 이야기: 3전시실

전시일정: 3월22일(수)~30일(목)

용문청소년수련장 이용 안내

넓은 잔디 운동장, 메타세콰이아 길, 나무그늘, 산속 십자가의 길, 수영장, 대강당, 100여명 숙박 본당 피정 · 연수 · 야외미사 · 야외행사 단체 · 소모임 · 예비신자 등 피정 / 당일 · 숙박

향심기도 피정지도: 김귀웅 신부

때: 4월6일~9일, 5월12일~14일, 6월16일~18일

7월7일~9일 / 문의: 031)774-3587

한국교회사연구소 2023년 1차 성지순례

때, 곳: 4월22일(토) 오전8시, 강화성당 · 오두리공소 · 해안성당 · 재물진두순교성지 · 천주교인천교구역사관
출발: 평화방송 건너편 가톨릭회관후문
회비: 5만원(중식, 순례책자 포함)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교회사동인회
문의: 010-3272-1011 간사 최정수, 010-3874-3506 간사 소해룡 / 입금 선착순 마감, 입금 후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순교자현양위원회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 달의 하느님의 중 '이용래 아우구스티노'

때: 매월 셋째주(화) 3월21일 오전 10시(184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3년 월요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곳: 1월2일~12월25일 매주(월) 13시~16시(90분 강

의+미사/온라인 동시강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회비: 연회비 12만원 / 문의: 010-7586-5425(문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양극화 시대에 크리스천의 복음 실천

때, 곳: 3월30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단중독사목위원회 · 한국중독연구재단(카프성모병원) / 문의: 02)364-1811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상반기 견진성사

대상: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받은 20세 이상 신자
신청기간: 3월19일(일)~4월9일(일) 구비서류 지참 후 내방 접수(자세한 일정과 서류는 명동대성당 홈페이지-성당소식 참고)

교육일정: 4월16일~5월21일 매주(일) 13시30분~15시30분, 교구청 401호(6주간 / 대면수업)

견진성사: 5월28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사무실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곳: 매주(금) 12시15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

층 소성당 /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음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61차 미사 3월2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춘천교구 평강 본당, 이천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평화나눔연구소 창립8주년 기념 세미나

주제: 정전 70년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곳: 3월30일(목) 13시~18시, 서울대교구청 502호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톨릭교육자회 & 가톨릭교육자의 날 안내

1) 가톨릭교육자회 안내

가톨릭교육자회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신앙인 교직원들을 위한 모임으로, 참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자회>, 중·고등학교 교직원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육자회> 두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인 미사 · 피정 · 성지순례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2) 가톨릭교육자의 날 신청

내용: 서울 가톨릭 초·중·고등학교들이 다 함께 모여 미사 · 특강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때, 곳: 4월22일(토) 9시~16시, 계성고등학교(길음동)

미사: 유경춘 주교(주례), 학교사목부 사제단

회비: 3만원 / 신규가입 안내 및 참가신청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지리산 피아골 피정

때: 5월19일~20일, 6월23일~24일,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 문의: 010-3712-8119

일본 가고시마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3박4일)
회비: 115만원·7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3월31일(금)~4월2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성체현시와 성모송 헌반 기도회

때: 3월20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젊은이 피정

대상: 40세 미만 미혼 여성 누구나
때, 곳: 4월21일(금)~23일(일),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성지순례와 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때, 곳: 4월15일~17일(대구 17곳)·5월5일~8일(부산 8곳·마산 6곳) / 출발: 서울 명동(대형버스)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14일(금)~17일(월)·5월5일(금)~8일(월)·5월19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때, 곳: 4월25일~27일·5월2일~4일·5월26일~28일·6월4일~6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4월3일~5일, 6월3일~5일
성지순례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성모승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4월15일(토), 배티·서운동순교성지(청주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4월21일(금)~23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4월13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젊은이 성체 조배의 밤 사순 성지순례

대상: 청년 30명 / 입금 후 문자 발송 부탁드립니다
때: 4월1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5시(명동 출발)
곳: 폰넨푸알 프란치스코 수도원(양평), 마재성지
계좌: 국민 794001-04-122952 사랑이 되는 기도모임
회비: 3만원 /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한철호 신부, 홍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5월20일(토) 14시~21일(일) 17시, 아론의 집
회비: 20만원(1부부) / 계좌: 신협 131-020-141399 천주교서울대교구(입금 후 연락)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있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4월1일~3일·4월10일~12일·4월13일~15일·4월17일~19일·4월22일~24일·4월26일~28일·10월1일~3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자연 피정·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70주년 기념행사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때: 3월20일~4월24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2) 파티마의 성모님께 한국을 봉헌한 70주년 기념 행사
미사 주례: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때: 3월28일(화) 12시30분~16시
곳: 명동대성당 대성전 / 강사: 이병근 신부(인천교구)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이론강습-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12주)

곳: 톡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돈암동, 주최)
문의: 010-6746-1997 (문자) / benedictseoul1987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3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3월28일(화) 10시~13시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센터
(주최, 종로3가 청담궁 앞) / 문의: 02)766-7370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곳: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곳: 가톨릭회관 5층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반 14시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화(지도: 김정희 신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금요영성 특강

주제: 가톨릭 신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강사: 손희송 총대리 주교
때, 곳: 3월31일(금) 16시~17시, 서소문성지 역사 박물관 B1 명례방 / 문의: 02)3147-2402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 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모집: 3월31일(금)까지 /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장학생 선발

선발 혜택: 남녀 각1명, 2023년 학비 50% 지원
대상: 초6~중3(홈페이지 참조)
그 외 9월 정규입학 및 여름캠프 모집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2023년 전진상 치유인문학 강좌시리즈10

김지연 작가와 함께하는 '나를 돌보는 글과 그림, 그림일기'
강사: 김지연 작가(그림책 '넘어', '아기포로', '백년아이' 등)
때: 3월23일~4월13일 (목) 10시~12시30분(총4주)
곳: 전진상센터(합정동) / 회비: 5만원
문의(접수): 010-7527-1956 (재)국제가톨릭형제회(A.F.I.)
1강(3월23일) 그림책과의 만남 그리고 나눔
2강(3월30일) 그림, 내 안의 새로운 '나'를 만나다
3강(4월6일) 그림으로 말하다1-사랑이 주는 말
4강(4월13일) 그림으로 말하다2-희망이 주는 말

모집

시스피나 시니어여성합창단원 모집

지휘: 이호중 교수 / 문의: 010-9842-8818
곳: 시스피나 음악원(신촌, 주최)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자유곡 1곡 / 대상: 60세 이하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수아비스합창단 단원 모집(제9회 연주회 준비)
오디션: 매주(월) 연습(19시30분~21시30분)전 자유곡
곳: 공간음악(전철 7호선 장승배기역) / 010-3731-6905
연주회곡: J.G.Rheinberger-Requiem in d op.194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3월22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3월28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윤상 신부(해의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3월27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3월26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평화요원 한식미사(전농동성당)

평화요원(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소재)의 2023년도
한식미사를 아래와 같이 집전하고자 하니 모두
분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때, 곳: 4월1일(토) 오전 11시, 평화요원(내) 잔디 미사장
집전: 전농동성당 주임 신부 / 문의: 02)2241-7841, 2

생명이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곳: 도미니코 수도회(주최, 강북구 수유동)

성체미사	매주(수) 19시30분	문의:
성토마스 성체신심회	넷째주(토) 10시	010-5818-8431

안내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우리맥소리-국악미사를 봉헌할 성당을 찾습니다
가톨릭 우리맥소리 국악성가단은 우리 교유의
음악과 소리로 미사를 봉헌하는 단체로 국악
미사를 봉헌할 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010-4643-2306 정대순 단장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정신분석적 자기이해와 자아성장집단
때: 4월12일~5월31일 매주(수) 13시~15시30분(8주)
집단형태: 반구조화 대면 집단상담
돕는이: 이인숙(심리학 박사, 이인심리상담연구소장)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
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번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마루'

대상: 사고사 또는 돌연사로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때: 4월13일~6월1일 매주(목) 14시~17시(8주)
곳: 용산성당(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3월26일(일)까지 접수 / 010-8891-4572 용산성당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왜 우리는 제주 4.3을 말해야 하는가?

때, 곳: 4월1일(토) 15시~17시30분, 예수회센터
출연: 강우일 주교, 현기영 작가, 김종민 4.3중
앙위원, 한상희 박사 / 회비 없음
문의(접수): 064)739-0951, 010-3884-0951 (문자) 예수
회 인권연대연구소,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관계역동적 집단상담 3월28일~5월30일 매주(화)
및 치유훈련 10시~13시(10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강박행동, 대인기피

나루 상담센터(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영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곳: 논현동 / 문의: 010-9139-1937 윤희순 수녀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되
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가리파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가족이 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회복을 위한 주·야간재활 교육 및
의존자 가족교육과 자녀모임 상시 운영
때: 주·야간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화·목) 19시~21시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
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한국 키로(CHIRO Korea) 모집

심시일반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신앙양성하는 국제
가톨릭 청소년 운동인 키로 공동체에 초대합니다
때, 곳: 매일 첫째·셋째주 10시~13시, 햇살사목
센터(종로구 혜화동, 주최) / 문의: 02)744-0840
모집인원: 초1(5명), 초2(6명), 초3(4명), 초4(2명),
초6(4명) / 선착순 모집(인터뷰를 통해 선발)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
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
리검사 / 교육 '토닥토닥잘될거야 심리여행': 4월3
일~5월1일 (월) 10시~12시(5회기)

직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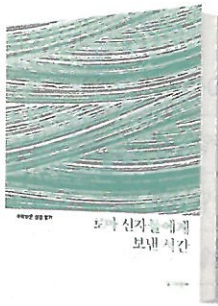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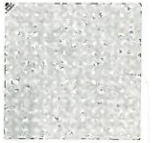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및 자원봉사자(의사) 모집

내용: 자원봉사자 의사(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신
경정신과), 직원 간호사 0명·간호조무사 0명 모집
(토) 진료 / 문의: 02)940-1503(hfh1990@daum.net)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10-6221-3520 유명일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3월26일(일) 9시	분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4월2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문제집

가톨릭 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50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날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수록했고,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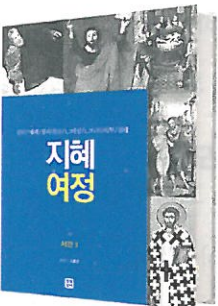


신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기도

토마스 데일리 지음
돈보스코미디어 | 160쪽 | 1만원
문의: 02)828-3535

2022년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서거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에 살레시오회는 수호 성인의 천상 탄일을 기념하고 마무리하며 이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성인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록한 요약본 전기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라』에 이은 두 번째 기념 도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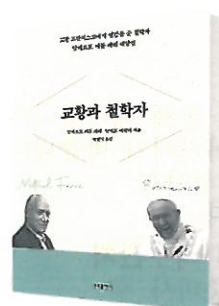


신간

지혜 여정 서간3

김효준 지음
생활성서사 | 160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이 책은 바오로 서간 전체를 13과로 나누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도, 도표, 성화, 이야기, 묵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바오로 서간 각 권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지금 여기'에서 복음적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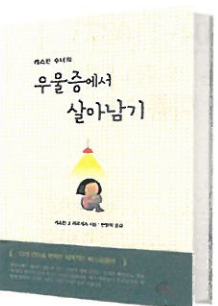


신간

교황과 철학자

알베르토 메톨 페레, 알베르 메탈리 지음
본도출판사 | 280쪽 | 2만3천원
문의: 02)2266-3605

알베르 메탈리와 알베르토 메톨 페레가 장기간에 걸쳐 대담을 나눈 뒤 핵심 내용을 추출해 엮은 책이다.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삶을 관통해 온 사상과 주제들을 담은 이 책을 통해 '광야의 토마스주의자'가 제공하는 폭넓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교적 통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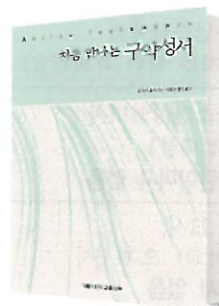


신간

캐스린 수녀의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캐스린 J. 헤르메스 지음
바오로달 | 280쪽 | 1만4천원
문의: 02)944-0944

『후회에서 벗어나기』 저자의 새로운 책이다. 우울증 진단과 기본적인 대처 방안 그리고 다양한 영성적 접근이나 훈련들을 제시한다. 저자인 캐스린 수녀는 자신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을 통해 우울증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됨을 알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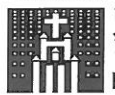
신간

처음 만나는 구약성서

장 루이스카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62쪽 | 2만원
문의: 02)740-9718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구약성서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책은 '설화학'이라고 부르는 성서 해석 방법을 통해서 구약성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또한 설화와 성서 주석의 개념을 이해한 뒤에 고대 이야기의 특성과 구약성서를 읽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열거한다.

제2272(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9구역 미사 봉헌

일시 : 3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노영숙 펠리치타스 자매님 댁

◎ 십자가의 길

일시 : ~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4월 7일(금) 오후 3시

◎ 청년 십자가의 길

일시 : ~ 4월 2일(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6시 미사 후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3월 23일(목) 오후 8시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성사표는 각 구역 반장님을 통해 배부합니다.
기타구역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전신자 부활맞이 대청소 및 국수잔치

일시 : 4월 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 성소후원회 미사 : 3월 21일(화)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성삼일·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4월 6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4월 7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8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4월 9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주일학교),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4월 6일~8일)동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병자영성체

일시 : 3월 24일(금) 10시 미사 후



주님 - 은 나의 목 - 자 아 쉬 을 것 없 어 라

◎ 아치에스 행사

일시 : 3월 26일(주일) 오후 1시 대성전

◎ 여성 율드레아

일시 : 3월 28일(화) 10시미사 후 304호

◎ 예비신자는 3월 26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장소
주일반 (오전 9시)	교육관 304호
수요반 (오후 8시)	

◎ 성서 백주간 그룹원 모집

성경을 3년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누구나 신청하면 됩니다.
시작 : 4월 11일(화) 오후 7시미사 후
문의 : 봉사자 (010-2734-0853)

◎ 초등부 주일학교 보조 반주자 모집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반주를 도와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습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군입대 자녀 부활선물은 4월 2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3월 25일(토) 오후 12시 혼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 오후 5시까지 성당 마당에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3. 12)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80	649 (31.2%)	599 (28.8%)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3월 6일~12일)

김건민 오만원 조영순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정수진 십만원 변경섭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사순 제3주일)

교무금 10,615,000원
주일헌금 5,543,000원

입당	117	봉헌	210, 211	성체	167, 498	파견	280
----	-----	----	----------	----	----------	----	-----